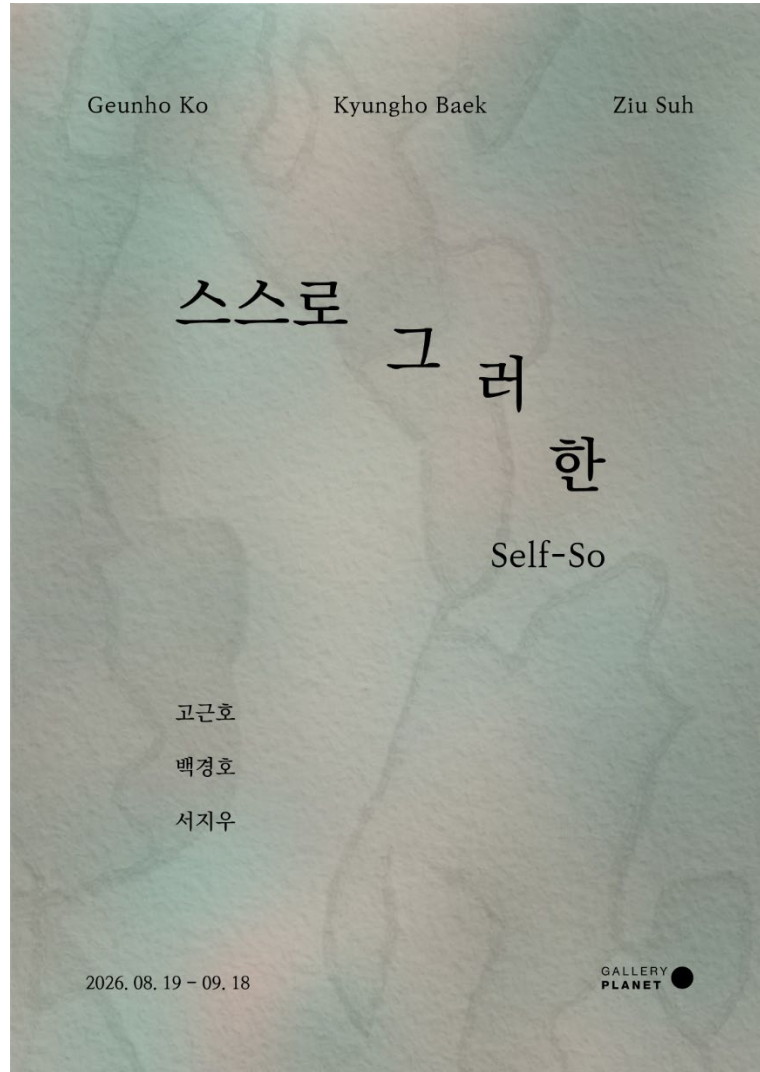


<Press Release>



□ 전시 개요

- 전 시 명 《스스로 그 러 한 Self-So》
- 작 가 명 고근호, 백경호, 서지우 그룹전
- 전시일정 2026. 08. 19(수) - 2026. 09. 18(금)
- 관람시간 화-토 11am - 6pm (일, 월 휴관)
-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1길 14, 2F 갤러리 플래닛
- 웹사이트 www.galleryplanet.co.kr / 인스타그램 @galleryplanet
- 취재문의 info@galleryplanet.co.kr | T. 02 540 4853

□전시 설명

갤러리 플래닛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백경호, 서지우, 고근호가 참여하는 3인전 《스스로 그러한 Self-So》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품의 형태와 의미가 전적으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작가가 통제를 유보한 자리에서 재료와 조건이 스스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회화·조각·설치로 구성된 세 작가의 작업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예술에서 '만드는 일'과 재료의 움직임에 '응답하는 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전시 제목인 '스스로 그러한'은 자연(自然)의 본래 의미인 '저절로 그러함'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개별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질서가 형성되는 '창발(emergence)'의 개념을 연결해, 작가의 개입과 재료의 자율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조명한다.

백경호는 캔버스의 방향을 바꾸며 물감을 쌓고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두텁게 축적된 유화 물감과 나이프의 움직임은 화면 위에 예측하기 어려운 흔적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이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정리하기보다 화면의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한 순간에 개입한다. 그의 회화는 사전에 구상된 이미지를 재현한 결과가 아니라, 물감의 물성과 작가의 행위가 서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서지우는 도시에서 수집한 재료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 가변적인 조각 구조를 만든다. 개별 재료는 그 자체로 고정된 의미를 지니기보다, 다른 요소들과 맺는 관계와 배열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작품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고정되지 않으며, 전시 공간과 배치에 따라 해체되고 다시 구성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눈앞의 구조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현재 잠정적으로 성립한 하나의 상태다.

고근호는 재료의 물리적 변화를 작업의 주요한 조형 원리로 활용한다. 캔버스 뒷면에 적용한 크랙 매체가 건조되며 수축하면 앞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작가는 그 흔적을 유화 물감으로 메워 화면 위에 드러낸다. 균열의 방향과 형태는 작업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위에 더해지는 형상 역시 재료가 만들어낸 흐름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백경호의 작업에서 재료의 자율성은 물감의 축적과 소거를 통해, 서지우의 작업에서는 수집된 단위들의 관계와 재배열을 통해 드러난다. 고근호는 건조와 수축에 따라 발생하는 균열을 화면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세 작가는 결과를 미리 확정하기보다 재료가 만들어내는 변화에 반응하며 작품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들의 작업에서 작가는 형태를 완전히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형태가 발생할 조건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 응답하는 존재로 자리한다.

《스스로 그러한 Self-So》은 완성된 형태를 선언하기보다, 형태가 스스로 도착하는 순간에 주목한다. 세 작가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작가가 홀로 만든 것도, 우연이 홀로 빚은 것도 아니다. 조건과 재료,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작가의 행위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관객은 완성된 결과를 감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물러선 자리에서 사물이 스스로 그러해지는 과정을 따라가게 된다.

□ 작가 소개 및 주요 작품 이미지



고근호(b. 1991)는 1991년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과에서 석사를 마쳤다. 최근 개인전으로 《굽이굽이》(엑스라지, 2025), 《2》(뮤지엄헤드, 2024)가 있으며, 《스스로 그러한》(갤러리 플래닛, 2026), 《장미는 장미는 장미는 장미는》(엑스라지, 2025) 등의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선보여 왔다.

고근호, 섬 박쥐 주머니(Bat Pouch Island) 2026, Crackle medium, oil on canvas, 140×140cm



백경호(b. 1984)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과에서 석사를 마쳤다. 최근 개인전으로 《느끼고 요구를 듣는다》(눈 컨템포러리, 2025), 《산책유후》(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22)가 있으며, 《에포케: 판단중지》(눈 컨템포러리, 2024) 등의 2인전과 《틸링 그라운드 Tilting toward Ground》(인천 아트플랫폼, 2025)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제23회 송은미술대상 본선에 선정된 바 있다.

백경호, 무제, 2025, Oil, charcoal on canvas, 219.6 x 205.5cm



서지우(b. 1991)는 신라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에서 석사를 마쳤다. 최근 개인전으로 《항구에서 일상의 나룻배》(코가네초 갤러리 A, 요코하마, 2025), 《이 아파트에서 지우가 무엇에 귀 기울이는가》(IMF서울, 2024)가 있으며, 《스스로 그러한》(갤러리 플래닛, 2026), 《길드는 서로들》(남서울시립미술관, 2024),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우란문화재단, 2024) 등의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선보여 왔다. 신주시 철도예술촌과 코가네초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센터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서지우, 2026, 마치 서울이란 바다에 뜬 아파트란 배처럼 No.1, 혼합매체, 90 x 53 x 180 cm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전 제공: 갤러리 플래닛

※보도자료 및 고화질 이미지 다운로드: [구글 드라이브](#)